

##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(한준호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106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1. 6. 24.

발 의 자 : 한준호 · 홍성국 · 안민석  
오영환 · 양이원영 · 기동민  
노웅래 · 이용빈 · 김원이  
변재일 · 송재호 · 임오경  
의원(12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1991년 7월 1일 「동물보호법」 시행 이후 총 26차례 개정을 거치며 동물학대죄에 대한 처벌은 점차 강화되어 왔음. 그러나 현행법 위반 사례는 2010년 총 69건에서 2019년 총 914건으로 약 13배 이상 급증했고, 동물보호단체에 따르면 학대 유형이 더욱 다양해지고 잔인해지는 경향을 띠고 있음.

그런데 연구를 통해 연쇄살인을 포함한 강력범죄 범죄자들이 공통적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기 전 동물을 잔혹하게 학대했다는 사실이 밝혀짐.

이처럼 동물학대 범죄는 단순히 동물 대상 범죄뿐 아니라 사람에게 대한 범죄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.

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동물에 관한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

수립·시행하도록 하여 동물에 대한 다양한 교육을 통해 인식의 변화를 꾀하도록 함.

또한 동물학대자에 대한 심리 치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동물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고 기타 범죄를 예방하도록 함.

이와 더불어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켜 동물학대 방지·동물의 생명보호 및 안전 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1주일을 동물복지주간으로 정함(안 제4조의2, 제22조의2 및 제40조의2 신설).

##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2(동물교육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동물에 관한 올바른 이해증진과 동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하여 동물에 관한 교육(이하 “동물교육”이라 한다)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동물교육을 추진하여야 한다.

1. 교육관계자, 동물 관련 종사자, 동물 관련 단체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로 전국적으로 추진
2. 어린이가 동물에 관하여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부모, 보호자, 교육관계자 등의 적극적 참여로 추진
3. 동물과 함께하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하여 국민 스스로 동물을 이해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추진

③ 동물교육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·시행 및 동물교육의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

제2장에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2조의2(동물복지주간) ① 국가는 국민의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과

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동물학대 방지, 동물의 생명보호 및 안전 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주일을 동물복지주간으로 정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복지주간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국가는 제2항에 따른 행사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0조의2(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·교육 등의 권고) 동물보호감시원은 학대행위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·교육 또는 심리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<u>제4조의2(동물교육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동물에 관한 올바른 이해증진과 동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하여 동물에 관한 교육(이하 “동물교육”이라 한다)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동물교육을 추진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1. 교육관계자, 동물 관련 종사자, 동물 관련 단체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로 전국적으로 추진</u></p> <p><u>2. 어린이가 동물에 관하여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부모, 보호자, 교육관계자 등의 적극적 참여로 추진</u></p> <p><u>3. 동물과 함께하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하여 국민 스스로 동물을 이해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추진</u></p> <p><u>③ 동물교육에 필요한 시책의</u></p>

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        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<u>수립·시행 및 동물교육의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</u></p> <p><u>제22조의2(동물복지주간) ① 국가는 국민의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동물학대 방지, 동물의 생명보호 및 안전 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주간을 동물복지주간으로 정한다.</u></p> <p><u>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복지주간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③ 국가는 제2항에 따른 행사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제40조의2(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·교육 등의 권고) 동물보호감시원은 학대행위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·교육 또는 심리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.</u></p>
--	---